

退溪의 誠敬哲學과 文學認識**

金 光 淳*

• 目 次 •

- | | |
|---------------|--------------------|
| I. 서 論 | IV. 誠敬哲學과 文學認識의 關係 |
| II. 退溪의 誠敬哲學 | V. 결 論 |
| III. 退溪의 文學認識 | |

I. 서 論

조선조의 문학을 논할 때 철학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본 논의는 시작된다. 조선조 문인 모두는 문과 철을 함께 중시하였다고 볼 때 이같은 입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이것은 體用, 혹은 本末의 문체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문학은 인간 性情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같은 언급이 가능한 것이다. 성정을 體로 보면 문학이 用이라 하겠는데 이것은 유학자 문인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체와 용의 관계를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다소 추상적인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논의의 진전이 필요하다.

일찍이 邵雍은 『論詩吟』이란 글에서 문답의 형식을 빌어 문학과 철학의 문제를 체용의 형식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경북대 국문학과 교수

** 동방한문학회, 『동방한문학』 제10호, (1994) 게재논문.

問:무엇 때문에 詩라 일컫는가?

答:詩란 그 뜻을 말하는 것이다. 언어로써 節奏가 있는 문장을 이루어 마음 속의 일을 말해내기 때문에 시라 한다.¹⁾

이와 같이 邵雍은 언어의 절주를 빌어 마음 속의 뜻을 말한 것을 바로 문학이라 인식했다. 이것은 곧 언어라는 형식을 빌어 자신의 성정의 내용을 문학으로 표출한다는 문학 일반론에 관한 언급이라 할 것이다. 일반론이라 하여 버리고 말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 유학자들은 그들의 학문인 理學의 중지가 바로 성정을 다듬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니 말이다. 성정을 다듬는 데 문학이 봉사할 수 있다는 문학의 철학적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유효한 언급이라는 것이다. 퇴계가 ‘스스로 문예에만 힘쓰는 것도 옳은 선비가 아니고 과거만을 추구하는 것도 옳은 선비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²⁾한 것도 같은 취지에서 마련한 언급이라 할 것이다. 이같은 언급은 문학은 마땅히 성정을 다듬는 데 소용되어야 한다는 것일 터인데, 孔孟과 濂洛關閩學³⁾을 그의 학문 목표로 설정했던 퇴계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수 있었다.

퇴계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세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국문 시가에 대한 연구, 한시에 대한 연구, 산문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이 세 갈래의 연구에서도 첫번째와 두번째의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였다. 첫번째의 연구는 『陶山十二曲』이 연구의 중심축이었으며, 두번째의 연구는 『閒讀武夷志次九曲權歌韻』이 연구의 중심축이었다. 이 두 영역 중에서 본고는 본질적으로 두번째 영역에 입각해 있다 할 것이다. 이같은 입장과 취지에서 본고는 퇴계가 가장 공들여 추구했던 誠敬철학이 그의 문학인식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이것으로 퇴계

1) 『伊川擊壤集』卷11, 『論詩吟』, 四部叢刊本.

2) 儒家意味自別 工文藝非儒也 取科題非儒也(『言行錄』, 『退溪學文獻全集』18, 啓明漢文學研究會 影印, 1991)

3) 濂溪의 周敦頤, 洛陽의 二程, 關中의 張載, 閩中의 朱熹 등이 제창한 宋學을 말한다.

의 문헌론이 ‘載道論的’이라는 다소 피상적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退溪의 誠敬哲學

『周易』 乾卦 文言傳에서 ‘修辭立其誠’이라 하였다. 여기서의 ‘辭’란 언어를 이야기 하는 것인 바 넓게 보면 ‘文’도 여기에 속한다. 한 마디도 실속이 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는데 ‘실속’이 있다는 것은 바로 언어 속에 도가 깃들여 있다는 것이다. 도가 다름아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기 위한 平常日用事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퇴계가 학문에 보낸 열정도 이와 같아서 넓되 잡된 점이 없고자 하였고, 敬과 義를 모두 지니면서 몰아일체를 이루려 노력하였으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려 하였다. 몰아의 일체는 곧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 경지에 이른 것을 유가에서는 ‘誠’이라 일컬었다. 『중용』의 다음 구절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가)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이며 성실히 하려는 것은 사람의 도이니, 성실한 자는 힘쓰지 않아도 도에 맞으며,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종용히 도에 맞으니, 성인이요, 성실히 하려는 자는 선을 택하여 굳게 잡는 자이다. 이것을 널리 배우며, 자세히 물으며, 신중하게 생각하며, 밝게 분별하며, 독실히 행하여야 한다. 배우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배울진댄 능하지 못하거든 놓지 말며, 묻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물을진댄 알지 못하거든 놓지 말며, 생각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생각할진댄 알지 못하거든 놓지 말며, 분별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분별하지 못하거든 놓지 말며, 행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행할진댄 독실하지 못하거든 놓지 말아, 남이 한 번에 능하거든 나는 백번을 하며, 남이 열 번에 능하거든 나는 천 번을 하여야 한다.⁴⁾

4)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有弗學 學之弗

‘誠’은 ‘眞實無妄’으로 풀이한다. 곧 ‘天理本然’을 의미한다 하겠다. ‘진실무망’이나 ‘천리본연’은 모든 잡된 것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다. 사람도 원래는 이같은 천리본연이나 진실무망으로 태어난다. 즉 사람으로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실무망한 천리의 실현이지만, 제반 환경에 따라 육체와 마음을 형성하고 있는 기운이 중정순수하지 못하고 치우치기 때문에 감각의 편향이 발생하고 급기야 사욕이 개입되어 진실을 파괴하여 허망한 자리를 만든다. 이로 볼때 성인은 ‘진실무망’과 ‘천리본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며, 범인은 이것을 잃어 사욕의 개재로 인해 진실무망이 파괴된 사람이라 하겠다. 위에서 말한 ‘성자’가 바로 성인인 것이다.

위의 글은 ‘誠之者’에 대하여도 말하고 있다. ‘誠之’의 ‘之’는 정성이란 명사를 동사로 읽기 위하여 붙인 것이다. 아직까지 진실무망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진실무망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성지자’인 셈이다. 현인 이하 범인이 모두 이 ‘성지자’에 속한다 하겠다. ‘성지자’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知와 行의 문제를 나누어 순차적 질서를 제시하였다. ‘博學·審問·愼思·明辨·篤行’이 그것이다.

퇴계는 이와 같은 성인의 경지인 ‘誠’을 인식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모색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그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敬’이라 하면서 대단히 정밀한 이론을 제출하였다. 다음의 예문이 바로 그것이다.

(나) 誠은 천도이고 誠하려는 것은 인도이다.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스스로 힘써야 한다. 스스로 힘써 誠으로 나가고자 하면 어찌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역시 오직 敬에 힘쓸 따름이다.⁵⁾

能 弗措也 有弗問 問之 弗知 弗措也 有弗思 思之 弗得 弗措也 有弗辨 辨之 弗明 弗措也 有弗行 行之 弗篤 弗措也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 果能此道矣 雖愚 必明 雖柔 必強(『中庸』).

5)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學者之所當自強也 而欲自強以進於誠 豈有他哉

(다) 사람이 하늘의 명을 받아 四德의 理를 갖추어서 한 몸을 주재하는 것이 心이요, 사물이 中에서 느껴 선악의 기미가 나타나서 한 마음의 用을 발한 것이 情意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心이 靜할 때 반드시 存養으로써 그 體를 보전하고 情意가 발할 때는 반드시 省察함으로써 그 用을 바르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 心의 理는 넓고 넓어서 붙잡을 수 없고, 깊고 깊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敬으로써 專一하지 않으면 그 性을 보전할 수 없고 그 體를 확립할 수 없다. 또 心의 發도 은미하여 작은 터럭과 같이 살피기 어렵고 위태로운 구덩이와 같이 밟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敬으로써 專一하지 않으면 그 기미를 바르게 하여 그 用을 통달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군자의 학문은 心이 未發일 때 반드시 敬에 主하여 存養工夫를 해야 하고, 心이 이미 발했을 때는 또한 반드시 敬에 主하여 省察의 공부를 더 해야 한다. 이것이 敬學이 처음과 끝을 이루어 體와 用을 관통하는 까닭이다.⁶⁾

(나)는 퇴계가 성과 경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이다. 성에 도달하기 위하여 경의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천도와 합치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 부른다. 앞에서도 이미 『중용』을 통해 언급했거니와 ‘진실무망’한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인간은 대단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력 그것이 바로 ‘경’이라 할 것이다. 일찍이 주자도 여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敬은 收斂·畏懼·不放縱이요, 誠은 朴直·懿實·不欺誑이다.’⁷⁾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경은 항상 몸과 마음을 모으고 삼가고 경계하고 방종하지 않음을 말하고, 성은 마음이 소박하고 곧고 성실하고 거짓됨이 없음을 말

亦惟用力於敬而已(『退溪全書』卷10).

- 6) 人之受命于天也 具四德之理 以爲一身之主宰者心也 事物之感於中也 隨善惡之幾 以爲一心之用者情意也 故君子於此心之靜也 必存養以保其體於情意之發也 必省察以正其用 然此心之理浩浩然 不可模捉渾渾然 不可涯涘 苟非敬以一之 安能保其性 而立其體哉 此心之發微 而爲毫釐之難察危 而爲抗塹之難蹈苟非敬以一之又安能正其幾 而達其用哉 是以君子之學 當此心未發之時 必主於敬 而加存養工夫 當此心夷發之際 亦必主於敬 而加省察工夫 此敬學之所以成始成終 而貫通體用者也(『退溪全書』3, 續集 卷8, 天命圖說).
- 7) 敬只箇收斂畏懼不縱放 誠只是箇朴道懿實不欺誑(『性理大全』卷37, 性理9, 誠).

한다. 이러한 경과 성은 각개의 속성으로 볼 때 경은 외적이라면 성은 내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 구분에 불과하다. 이 양자의 두드러진 구분은 『거짓됨이 없음』과 『방자함이 없음』에 두고 있다. 그래서 주자는 말하기를 ‘성은 不欺妄을 뜻하는 것이요, 경은 不放肆를 뜻하는 것이다.’⁸⁾라고 하였다. 보다 적극적인 표현을 빌면 성의 不欺妄은 ‘眞實無妄’을 말함이고, 경의 不放肆는 ‘謹慎戒懼’를 말한다 하겠다.⁹⁾

(다)는 퇴계가 ‘경’을 실천 덕목으로 할 것을 주장한 부분이다. 存養과 省察이 그것이다. 未發일 때는 안으로 存養하고, 已發일 때는 밖으로 省察하여 내외를 관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을 안으로 다스려야 할 것과 밖으로 다스려야 할 것을 분간하여 설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곧 퇴계의 광대무변한 마음의 체와 미묘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용을 專一이라는 ‘경’으로 통일하려는 실천적 노력을 여기서 간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퇴계는 敬은 誠으로 가는 길로 인식했다. 그리고 경은 마음의 안팎을 온전히 하는 순수한 힘으로 인식했다. 그러니까 마음의 體를 靜으로 마음의 用을 動으로 파악하고 靜할 때는 存養하고, 動할 때는 省察하여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했다. 마음의 體用 중 퇴계는 體 지키기를 더욱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근본이 튼튼하면 지엽은 다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배태된 듯 하다. 다음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라) 고요 속에 지닌 敬 옷깃을 바로하고, 마음 본디 이를진대 이 정녕 두 마음이다. 연평을 향하고자 이 뜻을 궁구하면, 水壺같은 가을달을 아득하여 못찾겠네.	靜中持敬只端襟, 若道觀心是兩心. 欲向延平窮此旨, 水壺秋月杳無尋。 ¹⁰⁾
--	---

8) 誠是不欺妄底意思 敬是不放肆底意思(上同).

9) 金泰泳, 退·栗의 誠敬思想 研究, 忠南大 博士學位 論文, 1988. pp.9-10 참조.

10) 『退溪集』 卷2, 『觀心』.

이 작품은 『觀心』이라는 七節이다.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다고 하겠는데, 1행에서 ‘靜’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마음의 체를 들어 ‘경’으로 지킬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경’은 ‘整齊嚴肅’의 다른 말이기도 하니 ‘只端襟’이라 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태도로 귀착되는 ‘정’의 상태를 4행에서처럼 ‘氷壺秋月’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杳無尋’이란 언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맑은 경지의 심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용』(가)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단 시작한 이상 기필코 완성할 것을 기약한다는 것이다. 노력을 이같이 해야만이 ‘愚→明’, ‘柔→弱’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퇴계는 경으로 성인에 도달하려 하는 노력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이 작품으로 나타냈다고 할 것이다.

III. 退溪의 文學認識

퇴계가 用보다 體를 더욱 강조하였던 태도는 문학에서도 같은 입장으로 나타났다. 퇴계는 문학을 ‘道’와 ‘文’으로 분립시켜 놓고 이해하였는데, ‘도’를 체로 보고 ‘문’을 용으로 보았다. 그러나 문은 도를 위하여 대단히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李猷 또한 여기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퇴계의 언급을 그 證左로 삼았다.

(가) 그는 일찍이 말하기를 『문학을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 글을 배우는 까닭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있다.』(文學豈可忽乎哉, 學文所以正心). 또 말하기를 『나의 시는 딱딱하고 담담하여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아니하는 바이나, 시에 힘을 기울인 것이 자못 깊으므로 처음 보는 이로 하여금 딱딱하게 느끼게 할지 모르나 오래 두고 읽으면 의미가 없지 아니하다.』고 하였고……11)

위의 글에서 보듯이 문으로 마음을 바르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는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¹²⁾ ‘시에 힘을 기울였다’는 말에서 퇴계의 문에 대한 애착을 확연히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여타의 載道論者들과 다른 점이라 하겠는데, 문에 대한 인식이 여타의 재도론자들과 달랐기 때문에 가사와 시조를 합쳐 도합 1833수라는 방대한 작품을 남긴 것이 아닌가 한다.¹³⁾ 학자는 문자를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본 생각 아래 그는 문학의 근본, 즉 도를 위한 글이라면 힘써 지었던 것이다. 다음 작품은 이러한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나) 시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가르치네,
詩子誤人人自誤,

- 11) 李猷, 퇴계선생의 詩作을 논설함, 『退溪學報』 第40輯, 退溪學研究院, 1983. p.41.
- 12) 퇴계가 ‘문예에 각별히 힘쓰는 것은 선비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문학을 배우는 까닭은 마음을 바로 잡는데 있다’고 하였으니, 얼핏 보기에는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경우 문학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도 알 수 있다. 즉 전자의 문학은 당시 유행하던 사장의 문학과, 후자의 문학은 도를 실을 문학을 말한다는 것이다. 도가 실린 문학은 얼마든지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며, 이같은 문학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 13) 퇴계는 많은 글을 남겼다. 후인들은 그의 유고를 모아 문집을 만들었는데, 『退溪先生文集 內集』, 『退溪先生文集 別集』, 『退溪先生文集 外集』, 『退溪先生文集 續集』, 『退溪先生自省錄』, 『四書釋義』, 『啓蒙傳疑』, 『宋季元明理學通錄 本集』, 『宋季元明理學通錄 外集』, 『陶山十二曲』, 『心經釋義』 등 11種에 이르고 있다. 이 또한 그가 ‘道’에만 매몰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중 문학작품 또한 다대 하다. 퇴계의 작품개관에 대해서는 李東喆(退溪의 內在意識과 詩의 몇 局面, 『어문논집』27, 고려대, 1987)교수가 정리한 바 있어 참고가 된다.
- ① 歌辭: 孔夫子闢理歌, 還山別曲, 相杵歌, 牧童問答歌, 勸善指路歌, 琴譜歌.
② 時調: 陶山十二曲, 淸涼山歌.
③ 漢詩: 1814수(王甦教授의 조사에 따랐다)

詩形	五 言			七 言			其他	計
	古詩	律詩	絶句	古詩	律詩	絶句		
作品數	103	160	144	51	352	970	34	
備考	407			1373			34	1814

흥이 일어 정서에 맞으니 짓지 않을 수 없구나.
 興來情適已難禁.
 풍운 움직이는 곳에는 귀신도 도와주고,
 風雲動處有神助,
 목은 피 녹을 때는 속된 노래도 사라지네.
 葷血消時絕俗音.
 율리의 연명은 시 이루어 정말 뜻이 즐거웠고,
 栗里賦成真樂志,
 초당의 자미는 시 고쳐 놓고 스스로 길게 읊었다지.
 草堂改罷自長吟.
 딴 일 탓으로 밝은 식견 지어내지 못하지만,
 緣他未著明明眼,
 그것 때문에 경경한 마음 편지에 쓴 것은 아니라네.
 不是吾緘耿耿心,¹⁴⁾

위의 시에서 보듯이 퇴계는 흥이 나면 시를 짓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혔다. 무엇보다 재도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은 마음을 해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해치는 것은 문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라고 하여 일반적 재도론자들과 대립되는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다. 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해치지 않았던 대표적 시인으로 陶淵明과 杜甫를 들고 그들과 같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리하여 尾聯에서 보듯이 ‘耿耿心’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퇴계가 俗音을 배격하고 ‘耿耿’한 마음을 터득하기 위한 문학의 으뜸으로는 노래하는 문학이라 보았다. 이 때문에 그는 『陶山十二曲跋』에서 그의 독특한 문학인식¹⁵⁾을 보여 주었다. 이 『도산십이곡跋』은 많이 인용되는 것이지만 퇴계의 문학인식이 비교적 잘 표출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떠올려 보기로 한다.

14) 『吟詩』, 『增補退溪全書』1, p.108.

15) 여기에 근거한 退溪의 自然觀과 人間觀에 대해서는 拙稿 “『陶山十二曲』에 나타난 自然觀과 人間觀”(『韓國의 哲學』22號,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1994)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 오른쪽의 『陶山十二曲』은 도산노인이 지은 것이다. 노인이 이것을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 동방의 가곡은 대체로 음란하여 족히 말할 것이 못된다. 『翰林別曲』과 같은 류는 문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지만 ‘矜豪放蕩’하고 ‘褻慢戲狎’하여 더욱 군자가 숭상할 바가 아니다. 오직 근세 李鼈의 『六歌』라는 것이 있어 세상에 널리 전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것(翰林別曲類) 보다 좋다고는 하나 ‘玩世不恭’의 뜻이 있고 ‘溫柔敦厚’의 실이 적은 것이 애석하다. 노인이 본디 음률을 알지 못하나 오히려 世俗의 음악은 듣기 싫어할 줄은 알아서 한가히 지내며 병을 고치는 여가에 무릇 性情에 감동된 것을 매양 시로 나타낸 것이 있다. 그런데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는 달라서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할 수는 없다. 만약 노래할 수 있도록 하자면 반드시 시속의 말로 엮어야 하는지라 대개 나라 풍속의 음절이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李氏의 노래를 간략하게 모방하여 『도산육곡』을 지은 것이 둘이니 그 하나는 뜻을 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을 말한 것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익혀 부르게 하여 의자에 기대어 듣게 하며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며 뛰게 한다면 아마도 비루한 마음을 씻어내 感發하고 融通하게 되어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함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¹⁶⁾

위의 글에서 퇴계는 문학인식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翰林別曲』류와 『陶山十二曲』류가 그것이라 했다. 전자는 ‘矜豪放蕩’·‘褻慢戲狎’·‘玩世不恭’하다고 했고, 자신이 지은 후자는 ‘溫柔敦厚’하다는 뜻을 비추었다. 이 ‘운유돈후’가 다름아닌 퇴계 문학인식의 독특한 시각이라 하겠는데, 문학을 철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라

16) 右陶山十二曲者 陶山老人之所作也 老人之作此何爲也哉 吾東方歌曲 大抵多淫不足言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戲狎 尤非君子所宜尙 惟近世有李鼈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乎其有玩世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 老人素不解音律 而猶知厭聞世俗之樂 閑居養疾之餘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 所不得不然也 故嘗略倣李歌 而作爲陶山六曲者二焉 其一言志 其二言學 欲使兒輩 朝夕習而歌之憑 而聽之 亦令兒輩 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蕩滌鄙吝 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李滉,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三, 陶山十二曲跋).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퇴계는 여기서 시조를 지어야만 했던 이유도 함께 밝히고 있다. 한시는 읊을 수 있을 따름이고 노래 부를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말 노래를 찾았다는 것에서 그 이유가 확연히 드러난다. 즉 시조는 노래 부르고 춤추는 데 소용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교화에 커다란 작용을 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부르고 스스로 춤추며 뛰게 하여, 비루한 마음을 거의 다 씻어버리고, 느낌이 일어나 마음이 녹아 서로 통하게 한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래 하는 사람이나 노래 듣는 사람이나 모두 근본을 찾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같이 문학을 효용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퇴계가 문학을 인식한 기본태도라 하겠는데, 주자의 『武夷權歌』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라) 나는 한가한 틈에 일찍이 『武夷志』를 읽었는데, 당시의 여러 사람들 중에 『武夷權歌』에 화답한 사람이 매우 많음을 보았으나, 선생의 뜻을 깊이 터득한 자는 없는 듯 하네. 또 일찍이 간행된 『權歌詩註』를 보니, 구곡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학문하는 도리에 들어가는 순서로 보았으나, 내가 보기로는 아마도 선생의 본의가 이와같이 구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네.¹⁷⁾

위의 글은 奇大升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 『武夷權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부분이다. 무이도가를 陳普 등이 ‘도에 들어가는 순서’로 이해한 것과 달리, 퇴계는 선생의 본뜻은 그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한 자연스런 흥을 시로 표현했을 따름이라는 다른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러니까 시를 통해 의식적으로 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흥의 차원에서 자연과 일치됨을 시로 나타낸 것이라는 적극적인 평가를 한 셈이다. 이것은 퇴계가 문학으로 어느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는가 하는 문

17) 『退溪全書』1, 卷16, 『答奇明彦別紙』

제를 주자의 『무이도가』 평을 통해 극명하게 보여준 좋은 예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퇴계는 조선조의 다른 유학자 문인들에 비해 문학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은 문학으로 심성을 닦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반적으로 재도지기의 문학론을 가진 작가들은 문학을 폄하하거나 하여 아예 창작을 기피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비해 퇴계는 방대한 저술과 작품을 남겼으니, 재도지기 문학론을 가진 것에는 다름이 없지만 다른 각도에서 퇴계의 문학인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논거가 여기서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그가 제시한 노래에 대한 장단의 의식은 문학에 대한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IV. 誠敬哲學과 文學認識의 관계

퇴계에게 있어서의 철학과 문학은 대립적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상보적 관계에 있는가를 이 장에서 따지기로 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일반적인 재도적 문학론자들은 이 둘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도덕을 위하여 문학은 기피되어야 한다는 극단론까지 펴기도 했다. 퇴계는 여기에 반발한다. 즉 문학은 그의 철학(도학)을 위하여 기능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오히려 문학으로써 그의 철학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퇴계는 철학과 문학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그의 인식세계에서 확보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온유돈후’에 바탕한 자연 바로 그것이었다. 자연 속에 내재해 있는理가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性と 만날 때 그 세계는 비로소 견고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다음의 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가) 다만 보내신 가르침에 관해서 논하면, 하늘 위의 달과 물 안의 달은 비록 마찬가지로 하나의 달이기는 하지만, 하늘 위의 달과 물 속의 달은 특히 비추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위로 달을 가리키

면 정말 얻고, 물속으로 달을 잡으려 하면 얻음이 없습니다. 정녕 性을 氣 가운데 있게 함이 물 가운데 있는 달의 그림자와 같아서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컨대 달이 물에 있을 때 물이 고요하면 달 역시 고요하고, 물이 움직이면 달 역시 움직이고, 그 움직임에서 물이 조용히 흘러서 맑은 광경에 투영된 것은 물과 달의 움직임에 물론 구애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혹 물이 아래로 분방히 흘러서 바람에 흔들리고 돌에 부딪쳐서 깨지고 뛰는 것이 되면 달은 부서지고 빛이 흔들려서 滅沒하는 것이 되고, 심하면 마침내 無月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대체로 이와 같으니 어찌 물 속에 있는 달에 명암이 있음은 모두 달의 所爲이며, 물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황은 그러므로 달의 광경이 고요히 흘러서 맑은 물에 나타난 것은, 비록 달을 가리켜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물의 움직임 그 속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만약 물이 바람 때문에 출렁거리고 돌에 부딪쳐서 달을 흔들고 달을 없앨 것 같으면, 오직 마땅히 물을 가리켜서 움직인다고 해야 할 뿐이며, 그 달의 有·無·明·暗은 물의 움직임의 대·소 여하에 관계된 것일 뿐입니다.¹⁸⁾

(가)는 기대승에게 편지하여 理氣二元論을 달에 비유하여 설명한 부분이다. 즉 ‘물 속에 비치는 달’이라는 환경을 설정하고 하늘 위의 달과 물 속에 비친 달을 통해 인간 성정의 존재론적 측면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퇴계는 먼저 물 속에 있는 달은 하늘 위에 있는 달의 그림자 일 뿐이라 규정하고,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물이 아래로 분방히 흐르거나 바람이 흔들리고 돌에 깨어지면 달의 빛은 없어진다고 하여 평정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달이라는 본성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 물 속에 비친 달이라는 본성은 滅沒하는 것이 아니라 ‘靜’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물이라는 동적인 기질에 따라 달의 있음과 없음, 밝음과 어두움이 판가름난다고 하였다.

하늘에 있는 달을 불변의 절대적 진리인 ‘理’로 볼 때, 물은 ‘氣’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면에 비친 달은 달의 ‘性’이라 할 것인데 물의 動·

18) 『退溪先生文集』 卷17.

靜·明·暗 여하에 따라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性’이 완전히 회복된 경지의 사람을 성인이라 불렀다. 이같은 생각 때문에 퇴계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나) 밝은 달은 하늘에 있고,	明月在天上
幽人은 창 아래 있다.	幽人在窓下
달빛은 맑은 못에 비치지만,	金波湛玉淵
원래 두 개가 아니다.	本來非二者 ¹⁹⁾

하늘 위에서 비친 달을 幽人으로 표현되는 구도자가 바라보고 있다. 3행에서처럼 ‘玉淵’이라 하고 있으니, 맑은 물임에 틀림이 없다. 물이 고요하고 맑기 때문에 물 속에서 퇴계는 하늘 위의 달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善惡未定인 상태의 기질지성에서 악이 완전히 소멸된 자리에 성인이 있다는 것이다. 퇴계는 즐겨 ‘幽人’을 이 자리에 도달하기 위하여 매진하는 구도자의 전형으로 내세웠다.

(다) 그윽히 사는 사람 어디만큼 있나,	幽人在何許,
온 세상 사람들 중 누 함께 같꼬.	舉世誰同歸.
숲 속이라 때 문은 기운 아슬하고,	中林遠垢氛,
홀로 서니 그 거동 고요하여라.	獨立靜其儀.
이따금 하얀 난새를 타고서,	有時騎白鸞,
하늘에 올라 요지를 차지하기도 하네.	遊天略瑤池,
흐린 머리 맑은 유반수에 감고,	濯髮洵盤水,
부상 가지의 해를 바라본다.	觀日扶桑枝. ²⁰⁾

위 시의 1행에 보이는 ‘幽人’은 (나)에서의 ‘幽人’과 다르지 않다. 유가에서의 구도자란 다름이 아니라 성인이 되려는 사람일 터이다. 심적 상태를 나타낸 대표적 용어로는 함련의 ‘靜其儀’와 미련의 ‘觀日’일 것이

19) 『八月十五夜西軒對月二首』, 『文集叢刊』 29, p.82.

20) 『退溪集』 卷1, 『和老杜幽人』.

다. 유인은 고요 속에서 그 행동양식을 찾아내고, 그 가운데 맑은 해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나)에서의 ‘幽人’이 기질의 고요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달과 완전한 화합을 이룬 상태를 명암으로 이미지화하여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 고요함 속의 맑은 상태란 퇴계가 생각한 성인의 심적 상태에 다름 아니다.

이상에서 퇴계가 ‘誠之者’에서 ‘誠者’로 나아가려고 했던 저간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것을 자연을 통해 제시하였는데, 幽人을 내세워 진지하게 자신의 의식을 표현하였다. 그리하여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자신이 마침내 성인의 심적 태도와 결합될 수 있었던 것을 작품으로 보여주었다. 진리-日用平常의 德行-를 실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자연을 탐구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궁극적으로는 진리가 본이고 자연이 용이라는 사실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그의 문학인식 속에는 성경철학, 즉 성인이 되는 방법론적 모색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V. 결 론

이상에서 퇴계가 가장 고심하며 해명하고자 했던 誠敬哲學이 문학인식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론에서 논급한 것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계는 敬은 誠으로 가는 길로 인식했다. 마음의 體를 靜으로 마음의 用을 動으로 파악하고 靜할 때는 存養하고, 動할 때는 省察하여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중 體 지키기를 더욱 강조하였다. 이것은 근본이 튼튼하면 지엽은 다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배태된 듯하다. 근본을 제대로 회복한다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는 작품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둘째, 퇴계의 문학인식은 載道論的이었다. 그러나 일반적 재도론자들과 달리 문학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무엇보다 재도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은 마음을 해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생각은 문학으로 심성을 닦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그가 제시한 노래에 대한 장단의 의식은 문학에 대한 진보적 사고를 가진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퇴계는 철학과 문학의 관계를 상보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구도자인 ‘誠之者’는 ‘誠者’가 될 수 있는데 문학은 여기에 봉사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연을 통해 이같은 생각을 문학으로 표현하였다. 자연 속에서 幽人이라는 대표적 구도자를 소재로 동원하여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퇴계가 誠敬哲學을 바탕으로 성인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방법론적 모색을 하고 있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고는 퇴계의 근본철학을 문제의 중심으로 부각시켰기 때문에 추상도가 대단히 높다. 이것이 추상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차후의 문학연구자들이 그 동안 퇴계철학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그의 철학이 갖는 내적 원리를 더듬어 문학에 적용시키는 보다 진전된 논의를 펼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날이 오면 본 試論과 함께 퇴계문학의 본령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